



12면

친도교 구 입실교당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전주매일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음 10월 30일) 제26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 81억 · 도교육청 71억 삭감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년 예산안 심사 마무리... 추경예산안 원안통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도지사가 제출한 8조 7,725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과 9조 4,159억원 규모의 제4회 추경예산안, 도교육청이 제출한 3조 5,46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과 3조 7,211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일부터~10일까지 8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서 도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안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소비촉진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심사했으나, 관련 신규예산(일자리 순도비 신규사업 3건, 7억원 불과) 편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어려운 시기에는 더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추계와 재입재 있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며, 추후 세입과 세출부서의 원활한 소통으로 건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주문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를 보면 전북도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안 총 8조 7,725억원 중 균형 발전방안 연구용역 3,800만원 등 총 51건 81억4,000만원을 삭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21년도 예산안 총 3조 5,469억원 중 학생안전관리(학생안전교육조형물설치) 2억 1,700만원 등 총 22건 71억3,700만원을 삭감 내무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2020년도 정리추경안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논란이 된 2021년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4개 사업은 2021년 1월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소산업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 및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전제로 원안결했고,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95억원) 9억 5,000만원은 삭감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지원(균특이안)(3억5,000만원)은 지자체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원안결했다.

2022 전북이태미스터대회 개최준비(43억7,500만원)는 코로나19의 전세

계적인 확산으로 연기 가능성이 있어 추후 개최 일정 확정시 이번에 일부 삭감된 20억6,2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나라사랑연수 운영(2,500만원), 융합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6천만원)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외유성 연수논란이 있어 전액 삭감 조치했다.

전북교육수련원 신축(81억2,200만원)은 올해 예산도 집행하지 못해 이월 예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삭감했다.

실내누리놀이터 조성(8억원)은 전면적인 추진보다는 일부 유치원에 시범 추진해 조성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실내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해성, 실내 천고마달에 따른 설치공간 확보 문제 등) 등을 사전·보완할 수 있도록 4억원을 삭감했다.

/유호상기자



전북도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선정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이 지난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남원시, 지역 문화재 4건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남원시가 관내 4건의 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는 '박형기 가옥'과 '양사재', '신촌동 석조약사여래좌상', '신파리 석조여래입상' 등 4건의 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비지정 조사용역을 통해 관내 향토문화유산의 전수조사를 끝내고 전문가 자문을 얻은 뒤 지난달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해당 문화재는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남원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4건의 문화재 중 남원 박형기 가옥'은 수지면 흙실마을에 위치한 전통가옥이며 이 마을은 고려말 충신이었던 충현공(忠顯公) 박문수(朴文壽)의 후손들이 세거(世居)한 죽산 박씨 집성촌이다.

조선후기에 지어진 가옥은 100여년 전에 다시 재축했으며 상류가옥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 건축기법과 재료가 우수한 가옥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원시 왕정동에 위치한 남원 양사

재(南原 養士齋)는 유생들이 모여 경사를 논하고 과거에 대비해 향풍을 바로잡는 기능을 수행하던 건물이다.

남원 신촌동 석조약사여래좌상(石造藥師如來坐佛)은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했던 항미축지인 약사불 도상으로 낮은 육계, 움추린 듯한 상체 표현, 배 앞의 형식화된 옷주름 등에서 고려초의 양식적 특징도 볼 수 있다.

'남원 신파리 석조여래입상(石造如來立像)'은 보살면 신파리에 '신흥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곳에 위치하며 한 돌에 광배와 불상을 함께 조각한 고려 초기 남원지역 불상과 유사한 조형성을 보인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도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선정 개거

'동서 내륙벨트 조성' 국토 균형발전 선도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서 주관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에 전북도의 4조 5,000억 원 규모의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이 지난 11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웰에이징 휴먼웰스케어 밸리 조성사업(8,000억원)과 천연자원 식의약 소재 개발사업(221억원) 등 2개의 참여사업도 기획과제로 선정돼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간 확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권역 형성 촉진을 위해 균형위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해 연계·협력사업을 발굴·기획해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전북도는 경북도와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을 균형위에 제출했다.

균형위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지난 10월 26일까지 총 53개의 사업을 접수해 1차 심사(11.3)와 2차 심사(11.13)를 거쳐 34개를 선정 후 3차 심사(12.8)에서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13개 사업에 전북도는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 프로젝트'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연구 기획비용을 지원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남북축 중심의 국토발전에서 동서간 연계를 통한 지역 및 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내륙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영호남 지역의 발전 속을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

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경북도는 정부의 지역균형뉴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양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이 지난 11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태·힐링밸리, 국토동서회화 상생공원 등 백두대간 상생거점 조성사업과 함께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완결, 전주~김천 철도망 조기 구축, 스마트 물류기지 건설 등 광역 SOC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균형위로부터 사업추진계획 기회비를 지원받아 세부 추진계획 및 자원 확보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기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추진하고 경북도와 경북연구원이 협조 기관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가 주관하고 전북도와 광주시가 참여하는 '웰에이징 휴먼웰스케어밸리 조성사업'과 제주도가 주관하고 전북·충북·경북이 참여하는 '천연자원 식의약 소재 개발 사업'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은 동서간 균형발전은 물론,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뉴딜의 대표적인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될 것이다"며 "전북도의 지역발전정책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